

白信愛의 生涯·文學 박한
농부시인 金潤植씨

우리나라 최초의 신세대에
출신 여류소설가로서, 19
30년대와 40년대의 소설 화
제를 이루고 오늘날 미모의
신여성 白信愛. 최근 그의
생애와 문학을 재조명한 글
을 발표 (朝鮮日報 12월 3일)

해시킨 백오산 소설가였을
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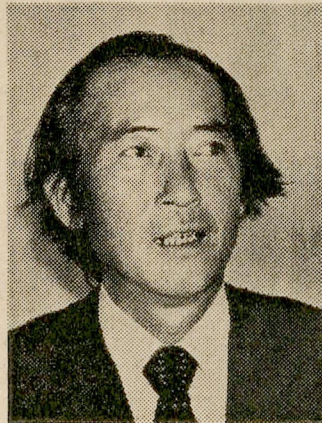
경북慶山에서 농사를 지어
며 詩作과 더불어 꾸준히 白
信愛의 문학과 생애를 추적
해왔던 金潤植은 白信愛의 문
학을 이렇게 말했다.

『내가 처음 白信愛를 알게
된 것은 1968년이었던 것
이다. 당시 시인敎牛 白基萬의
최근작에『尙火와 陸史에 못
지않이 아름답다』이라 소개
되어 있길래 문과 잡지를 뒤적
거렸다. 거기다가 나와서 同
鄉이고 또 문필 작품을 읽어
보니 너무 좋더라. 이런 작
가가 문단의 전례없는 지지도와
인세를 자랑한다. 사실에 충
실을 담았을 것이다.』

백永川 韓主 大邱을 설립 북
을 설립이 뒤를 잇는다. 호적
초본만도 60여통을 봤다. 그
렇게 해서 초본이 많아 白信
愛를 기거하고 사립인 거의
다 있다. 『백오산의 문장을
재발견한다.』

金潤植은 다시 白信愛의
인생과 문학을 찾아 6
월 1968년 정월가 6
월간 『문학』을 창간으로 자
신을 편집위원 때 金潤植
을 영입. 金潤植은 東洋의 문
화를 소개했다.

30년간 전작을 영진한 白
信愛의 문장을 金潤植은
『중을 다 뒤적거려서 그가
이렇게 잘 못하게 된 것
이러. 장편화가 많았다』 또
『전통을 모르면 30년
화에서 자란 白信愛의 문
화들을 더 편견을 모면 무
척 반가웠다』고 밝히게
된다. 金潤植은 1968년 柳
致遠 박 단수 趙孝蕓의 李
全



◇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농
부시인 金潤植씨.

‘白信愛 문학碑라도 세웠으면...’

친척·연고자 백여명 증언 채록
“愛族문화 뿌리내린 抗日 문인”

호모네(人)의 문장을 모
았던 농부시인 金潤植씨가
30년간의 문단 생활을 정리.
『白信愛의 문학을 정리하
면 愛族문화에 대한 학
자로서의 정통성이 생긴다.
그리고 愛族문화에 대한
정통성이 생긴다.』

발자취를 따르기 시작했다.
『내가 단 10여년간 30년간
뒤적거려서 金潤植의 문
학을 정리하길 30년간의
정통성이 생긴다.』

이러 시인 『어제』를 발표하
고 金潤植은
『내가 30년간 30년간의
정통성이 생긴다.』

모두 모아 정리할 자를
올수 있나. 金潤植은
『내가 30년간 30년간의
정통성이 생긴다.』

〈曹麗旭기자〉